

■ 일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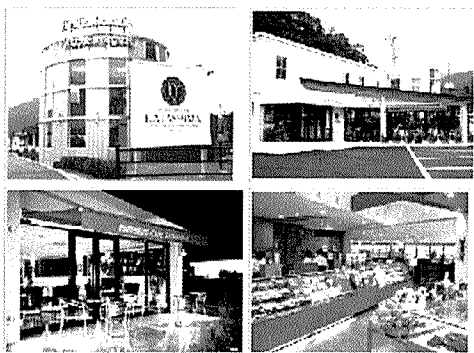
## 주목받는 신소재 보라색 고구마 간기능 활성화 돕는 건강 제품으로 인기

고구마의 신품종 보라색 고구마가 주목받고 있다. 신선한 보라색 과육이 특 징인 보라색 고구마의 원산은 카고시마 종자로 주산지는 큐슈남부이다. 생산 지가 한정되어 있어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품종은 여러 종류가 있다. 가장 인기가 높은 품종은 카고시마산 '種子島紫'와 '아아무라사키'. 최근에는 치 바, 이바라기 등 관동지방에서도 생산되고 있다. 보라색 고구마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간기능 활성화를 돕는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부터다. 일반 고구마보다 단맛이 적어 페이스트, 파우더 상 등으 로 과자 재료로 많이 쓰인다. 한편 보라색 고구마로 만든 술까지 등장해 눈 길을 끌고 있다.

## 가타시마 본점 리뉴얼 오픈 로고와 외관 새롭게 꾸며

### Shop Guide

main Shop (カタシマ本店)



1970년 창업 이래 효고(兵庫) 북부지방의 양과자를 대표하고 있는 베이커리 가타시마 본점이 인테리어를 바꿔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. 가타시마는 본점 을 비롯해 3곳의 지점과 프랑스 레스토랑 '라·비엘'을 운영하고 있는 가타 시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. 가장 오랜된 역사를 자랑하는 본점 은 리뉴얼 오픈에 맞춰 로고를 바꾸고 양과자 판매를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 의 성격을 벗어나 이탈리아 바를 도입한 인테리어를 구성했다.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외관과 시스템 도입으로 벌써 명소로 자리매김했다.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양과자 위주로 구성한 제품은 맛에서도 훌륭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■ 프랑스

## 한국, 프랑스, 일본 등 총 20개 국 참가 월드페이스트리컵 2005 참가국 최종 확정



월드페이스트리컵 2005에 참가할 국가가 최종 확정됐다. 한국을 비롯해 총 20개 국이 월드페이스트리컵 조직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것. 조직위는 전 세 계 30개 국의 서류심사를 통해 20개 국을 선정했다. 선발된 나라는 독일, 영 국, 벨기에, 캐나다, 중국, 콜롬비아, 한국, 스페인, 미국, 이탈리아, 일본, 요르 단, 그리스, 프랑스, 레바논, 모로코, 네덜란드, 포르투갈, 러시아, 싱가포르이 다. 이 중 2005년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곳은 그리스, 러시아, 요르단 등 3개 국이다.

한편 프랑스대표팀은 제9회 유럽 초콜릿 전시회 기간에 국내 대표선발전 을 치러 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선수단을 구성했다.

## 젊은 고객 타깃으로 한 신개념 카페 르 봉 마르세, '스낵 쉬크' 런칭

백화점 '르 봉 마르세'가 '스낵 쉬크(Snack chic)'라는 이름의 카페를 런칭 한다. 포송의 슈프로 근무했던 세바스티앵 고다르 씨를 필두로 젊은 슈프들 을 영입, 신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. 스낵 쉬크는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카페로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 템의 메뉴가 선보일 예정이다.

스낵 쉬크의 인테리어 또한 젊은층을 사로잡을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꾸 며졌다. 이곳의 실내 인테리어는 디자이너 클로디오 콜루치 씨가 맡아 노랑, 분 홍, 파랑 등 일명 '비타민 색상'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장난스럽고 유쾌한 분 위기를 연출했다. 전통적인 카페가 즐비한 파리 시내에 신개념의 카페 등장 은 식음료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